결혼이주여성 대상 시에 나타난 다문화 양상

- 하종오 시를 중심으로 -

윤혜옥*

‖ 차 례 ‖

Ⅰ. 들어가며
Ⅱ. 생존의 여성화와 엇갈리는 욕망
Ⅲ. 문화적 배제와 타자화
Ⅳ. 전지구화와 다문화 공간의 상생
Ⅴ. 나오며

【국문초록】

지구적 자본주의의 흐름은 이주화 현상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고는 하종오 시에 등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 양상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하종오 시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 양상은 대체적으로 생존의 여성화와 엇갈리는 욕망, 문화적 배제와 타자화, 지구화와 다문화 공간의 상생으로 드러난다.

생존의 여성화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실업의 심화로 여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계책임자로 나서서 지구화의 흐름에 편승하고, 한편으로는 여성들로 하여금 열악한 이주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한다.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동남아 여성들은 한국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유기, 심지어 결혼이주여성의 자살 등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이주를 선택한다.

이러한 이주여성들 또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동기와 더불어 잘사는 나라에 가서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은 근대적 욕망도 동시에 갖고 있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남성들 역시 시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줄 온순한 여성을 원하지만 동시에 결혼을 통해 자신도 근대화된 한국의 어엿한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얻고 근대적 가족의 가장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을 함께 갖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부부의 서로 엇갈리는 욕망들은 폭력, 이혼, 불신 등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초래한다.

또한 문화적 배제와 타자화에서는 한국식 문화만을 강요하고 이주여성 출신국가의 문화를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이다. 두 문화가 만나서 풍요로운 문화로 융합하려는 배려가 결여된,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고립과 타자화는 가속화될 뿐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도 전지구화와 다문화 공간의 상생을 통하여 보통의 가정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과 결혼 생활을 통하여 탈영토화 된 문화들을 끊임없이 수용하며 실천하고 있다.

주제어 : 하종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생존, 여성화, 문화, 타자화, 전지구화

Ⅰ. 들어가며

이주의 양상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최근 이주의 여성화는 전지구적 차원의 현상으로 인지되고 있다. 실제로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주자 개인의 동기나 배경, 가족 단위의 생존 전략, 국민국가 수준의 정책, 그리고 아시아 지역경제나 지구화의 흐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1)]

같은 맥락에서 아르준 아파두라이는 전지구적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문제는 문화적 동질화와 이질화 사이의 긴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탈구들을 탐구하는 기초적인 틀을 전 지구적 문화 흐름의 다섯 가

1) 황정미,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연구』제9권, 한국여성연구소, 2009, p.4.

지 차원들, 곧 에스노스케이프(인종적 풍경) 미디어스케이프(매체의 풍경), 테크노스케이프(기술의 풍경), 파이낸스스케이프(재정적 풍경), 이데오스케이프(이념의 풍경) 사이의 관계를 탐사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제안한다.[2)]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단일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국가의 발전에 대한 신념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담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의 배우자, 한국인의 부모가 되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존재는 국민과 민족의 경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다문화로 되어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학도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시와 소설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하종오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들이 독보적이다. 하종오는 초기에 민중적 서사시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시의 변화를 거듭하며 왕성한 시작 활동으로 20여권의 시집을 발간하였는데, 2004년 『반대쪽 천국』부터 이주민 문제를 시화하기 시작하여 『국경 없는 공장』, 『아시아계 한국인들』, 『입국자들』, 『제국』, 『남북 상징어 사전』 등에서 아시아와 아시아를 넘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주민의 문제의식에 천착한다. 특히 하종오의 시집인 『아시아계 한국인들』의 自序에서 밝히고 있듯이 결혼이주여성[3)]은 출신국과 수용국의 가부장적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며, 외국인 아내에 대한 특정한 인종적 편견에 노출된다. 그리고 모계 사회의 시조도 되며, 자식들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도 한다. 이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

2)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 외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p.61.
3)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말한다. 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42, 한국사회학회, 2008. p.41)

국 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한 결혼이주 여성들의 다문화 현상을 전지구적 흐름 안에 위치시키고, 한국사회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하종오의 시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생존의 여성화와 엇갈리는 욕망

1. 생존의 여성화

생존의 여성화는 지구화의 영향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실업의 심화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치 있는 인력, 경쟁력 있는 인력이 아닌, 오히려 가계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계책임자로 나서게 되는 현상이다.[4)]

생존의 여성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열악한 이주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한다.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동남아 여성들은 한국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유기, 심지어 결혼이주여성의 자살 등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이주를 선택한다.

이처럼 '생존의 여성화' 현상은 외국인과의 결혼의 불행이나 폭력, 인신매매 등의 이야기가 들려와도 위험을 감수하고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만든다.[5)]

아버지가 한국 가서
집안에 보탬을 달라 해서
베트남 처자는 한국 중년에게 시집왔다

---

4) 황정미, 앞의 논문, p.14.
5) 황정미, 앞의 논문, p.15.

한국 중년이 낸 지참금 중에서
중개업자가 얼마를 챙기고
집으로 얼마나 건네졌는지
베트남 처자는 알지 못했다

시댁에 들어온 베트남 처자는
저녁에 이부자리 조용조용 펴고 갰지만
아침이면 친정으로 돌아가
강물에 털벅털벅 헹구고 싶었다

뒷목에 솜털이 송송하고 뺨이 여린 처자는
가난한 중년 남편의 가슴에 안기는 것보다
가난한 중년 아버지의 등에 기대는 것이
더 편안한 나이였다

<…>

- 「코시안리[6] 4」부분[7]

이 시에서의 베트남 처자는 연령의 차이가 많음에도 가부장적 규범에 따라 가계의 책임을 떠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다. 집안에 보탬이 되라는 아버지의 말에 한국의 중년에게 시집 온 뺨이 여린 이 처자는 아버지가 지참금으로 얼마를 챙겼는지를 알지 못한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중년의 남자와 이부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매매혼과 다름없는 것이다.

6) 코시안리 Kosian里 : Korean은 Korean과 Asian의 합성어. 'Koean Asian'은 한국계 아시아인'이 적확한 뜻이겠으나, 여기서 줄인 '코시안'이라는 낱말은 모계 혈통을 존중하고 긍정하는 개념이 담긴 표기로써 베트남계 한국인, 필리핀계 한국인, 타이계 한국인, 중국계 한국인 등을 통합하여 '아시아계 한국인'이라는 의미로 썼다.(하종오, 『아시아계 한국인들』, 삶이 보이는 창, 2007, p.54.)

7) 하종오, 위의 책, pp.59-60.

악몽과 같은 밤을 함께 지냈던 이불의 홑청을 빨 때마다 고향집에는 없는 세탁기라는 문명의 편리함에서나마 위안을 찾으려고 한다. 지참금을 받아 생활이 나아졌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어린 신부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

윗집 사는 베트남 새댁이
소매 긴 웃옷 입고 단이 긴 치마 입고
아랫집 사는 필리핀 새댁 찾아오더니
살며시 손잡고 뒷산으로 이끌고는
소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베트남 새댁이 더운 날에 입은 옷 보면
필리핀 새댁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불볕 타지 않기는 매한가지여서
온몸에 멍들었을 게 틀림없었다
<…>
한여름 채 가기도 전에
아랫집 사는 필리핀 새댁이
소매 긴 웃옷 입고 단이 긴 치마 입고
윗집 사는 베트남 새댁 찾아오더니
살며시 손잡고 뒷산으로 이끌고는
소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코시안리 21」부분[8)]

이주여성들이 남편들에게 당한 폭력의 피해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더운 날인데도 “소매 긴 웃옷 입고 단이 긴 치마 ”를 입었다. 베트남 새댁과 필리핀 새댁은 가정 폭력을 당하여 벌겋고 푸른, 몸의 상처들을

8) 하종오, 위의 책, pp.87-88.

숨기기 위하여 몸을 감춰 주는 긴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고, 살며시 손잡고 뒷산으로 오른다.

한국말이 서툴러 아직 대화는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에 마주보고 위로 한다. 하늘에 떠 있는 뜨거운 해를 보며, 불현듯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감수해야 한다. 고향의 하늘에도 떠 있을 뜨거운 해는 그녀들의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한다.

이주여성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희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아내를 통제하려는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는 이주여성을 희생자로 만든다.

<…>
농촌 시집살이 일 년
어패럴 공장생활 사 년
조선족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옷가게를 차릴 만큼 착실히 모은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리 부쳐 놓았다
오늘만 한국에서 한 끼를 거르고
내일부터 집에선 세 끼를 챙겨 먹겠다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시집 살 적엔 밭일 느리다고 점심 못 얻어먹었고
공장 다닐 적엔 식대가 아까워서 점심 못 사먹었다
반십년 동안 아침밥과 저녁밥만 먹고
밤낮으로 일한 조선족 여자는 이제 반날 걸려
집에 도착하면 실컷 잠잘 생각하며
사증 심사관 앞으로 걸어가 서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여권과 티켓을 내미는
순간, 시집살이도 공장생활도 잊히었다

-「코시안리 44」 부분[9]

한국을 떠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입국 전부터의 생존전략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밭일이 느리다고 점심을 주지 않는 시댁식구들이었으니, 시집살이를 감당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이는 한국 가정 중 대다수가 빈곤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댁의 밭일을 하면서, 어패럴 공장을 다녔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 옷가게를 차리기 위하여, 이제는 이주여성 스스로 점심값을 지출하지 않는다. 생계유지가 담보로 되어있는 이주 여성들에게 국제결혼의 안정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코시안 가족 5」[10]에서 보여주듯 한국인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은 삶의 열정마저도 식어버리게 한다. 그러나 이 참혹한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도 고향의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경제적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속사정」[11]에서도 나타나듯이 스무 살이나 더 많은 남편과 이제는 이혼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남편이 친정에 준 지참금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어린 결혼이주여성은 인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결혼 이주의 원인이 되는 생존의 여성화라는 개념 안에는 여성들의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 희생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2. 엇갈리는 욕망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은 경제 위기가 가족부양의 위기를 초래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주의 여성화 안에는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

9) 하종오, 위의 책, pp.125-126.
10) 하종오, 「코시안 가족 5」, 『반대쪽 천국』, 문학동네, 2004, p.47.
11) 하종오, 「속사정」, 『입국자들』, 산지니, 2009, pp.158-159.

적 위계가 강화되는 측면과 가부장제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적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측면이 함께 존재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여성이 보다 잘사는 국가의 남성에게 시집을 가는 상황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결혼의 성별 위계에 부합하며, 여성은 남성 우위의 권력관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또한 이들의 결혼 결정에는 경제적 동기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회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 이주여성과의 결혼은 하향혼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우위의 성별위계를 유지하기 쉽다. 한국과 같이 문화 동질성을 강조하고 단일민족과 순혈주의 정서가 강한 사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선택하는 남성들의 동기는 바로 이처럼 남성위계, 부계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단일과 순혈은 흐려지더라도 부계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남녀가 며칠간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결정하는 배후에는 각각의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이 형성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남성과 여성의 욕망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르며, 이주여성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가족 규범과 이 여성을 받아들이는 남성이 기대하는 가족 규범은 매우 상이하다.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본국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동기와 더불어 잘사는 나라에 가서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은 근대적 욕망을 동시에 갖고 있다. 남성들 역시 시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줄 온순한 여성을 원하지만 동시에 결혼을 통해 자신도 근대화된 한국의 어엿한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얻고 근대적 가족의 가장으로 살고 싶다는 욕

12)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42, 한국사회학회, 2008. p.59.

망을 함께 갖고 있다. 결혼 이후 가족생활에서 이처럼 엇갈리는 욕망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배태하고 있다.13)

다음에서 보여주는 시는 이주여성의 욕망을 뒤늦게 깨달은 한국인 남편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젊은 중국인 아내가 사라진 뒤
늙은 남편은 애가 타도
행방불명 신고하지 않고
고추줄기 뽑다가도 콩 털다가도
한길 바라보며 아내 기다렸다
소지품 놔두고 여권만 챙겨간 걸 보면
자진해서 가출한 게 틀림없었다
고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는
또래 여자가 찾아와 놀다간 뒤에
혼전 약속대로 처가에 생활비 보태 달라던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걸
늙은 남편은 후회하면서
젊은 중국이 아내가 공장에 위업하여
다달이 친정으로 송금하고 있다면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
<…>

-「코시안리 25」부분14)

여권만 챙겨서 스스로 가출한 젊은 중국인 아내를 늙은 남편은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의 아내는 고향의 생계부양을 책임지고 국제

13) 황정미, 앞의 논문, p.21.
14) 하종오, 『아시아계 한국인들』, 삶이 보이는 창, 2007, pp.93-95.

결혼을 결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 역시 고추 심고, 콩 심고, 쌀농사 짓는 하류층의 가정이어서, 혼전 약속을 지키라는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것이다. 중국인 아내는 산업연수생으로 온 친구를 따라 공장에 취업해서 친정에 송금을 할 것이다.

늙은 남편이 아내의 약속을 들어주었더라면, 쌀이라도 팔아서 장인, 장모에게 보내주었더라면, 아내는 가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의 엇갈리는 욕망으로 인해 국제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친정 다니러 가기 전의 베트남 부인의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배가 부른 젊은 베트남 부인이
친정 다니러 가기 전날
젊은 한국인 남편과 가방을 꾸렸다

한국인 남편이 간식용 컵라면 좀 싸려고 하자
베트남 부인은 전기밥솥 챙기며
친정에는 쌀농사 짓는다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이 특산품 사과 좀 싸려고 하자
베트남 부인이 믹서 챙기며
고향에는 과일농사 많다고 말했다
<…>
그날 밤 젊은 한국인 남편한테서
장인 장모 용돈으로 백 달러짜리 여러 장 건네받고
친정 다녀 올 준비를 가뿐하게 끝낸 뒤에야
복중 아기에게 외가 간다고 속삭였다

–「베트남계 한국인–전기밥솥과 믹서와 커피메이커와 달러의 근친覲親」부분[15]

국제 결혼한 젊은 부부가 친정 다니러 가기 전날, 가방을 꾸린다. 한국인 남편이 컵라면, 사과, 녹차를 싸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 부인은 만류하며 전기밥솥, 믹서, 커피메이커를 챙긴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으로 드릴 달러를 여러 장 건네받은 뒤, 드디어 친정 나들이 준비를 완료한다.

베트남 부인은 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아울러 친정 가족들에게도 문명의 편리함을 선물하고 싶고,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일 것이다. 베트남 부인의 마음속의 욕망이 재치 있는 대화들로 표현되어 있다.

다음 시는 결혼 결정이 경제적 동기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처녀는
E-9 비자를 받기보다
덜 어려운 F-2 비자 받으려고
맞선 통과해서 신부가 되었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한
중국처녀는 가정도 꾸리고
공장도 다니는 한국여자가 되어
F-5 비자로 바뀌면
돈 많이 벌고 선물 많이 사서
중국에 다녀가리라고 다짐 했지만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여자가 되려면 아이부터 배고
시부모 봉양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
중국인 처녀는 여권만 챙겨서

15) 하종오, 위의 책, pp.34-35.

어두운 밤에 도망쳤다

- 「코시안리 24」부분[16]

중국인 처녀는 비전문취업사증인 E-9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비자는 받기가 어려워서, 덜 어려운 거주사증인 F-2 비자를 받으려고 신부가 되었다.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하여 영주사증인 F-5 비자를 받아 한국여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친정에 다녀오리라 다짐했었다.

그런데 결혼한 시댁에서는 아이를 낳아야 하고 시부모도 봉양해야한다는 걸 알았다. 가정도 꾸리고 공장도 다닐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 마침내 중국인 처녀는 여권만 챙겨서 도망을 쳤다. 각각의 욕망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하고 있는 시이다. 국제결혼을 통하여 서로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내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주여성 입장에서의 결혼 동기와 시부모 봉양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줄 온순한 여자를 원하는 한국 남성의 결혼 동기는 서로가 엇갈리고 있다.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주 여성들의 생존을 위한 여성화와 한국인 남편과 이주여성의 엇갈리는 욕망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폭력, 이혼, 불신 등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Ⅲ. 문화적 배제와 타자화

문화라는 개념의 특질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차이라는 개념이다. 차이는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실체적인 질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사물

16) 하종오, 위의 책, pp.92-93.

과의 대조 가운데서 나타나는 비교적인 특성을 말한다. 문화는 현상의 한 국면, 즉 상황이나 육화되는 정도에 따라 차이를 갖는 하나의 국면으로 간주될 때 좀 더 유용한 개념일 수 있다.17)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해온 여성들의 경우 시부모나 시집식구들의 차별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데 그 기저에는 가난한 나라의 출신이라는 국가차별이 작용한다. 언어소통의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가난=야만과 무지'라는 등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문화 수용의 인식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문화를 비롯하여 음식이나 한글 등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과도 상통한다.

한국식 문화만을 강요하고 이주여성들 출신국가의 문화를 수용하려 들지 않는 태도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순적인 태도이다. 이주결혼여성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 문화에 적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겠다는 태도가 결여된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이 됨으로써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고립과 타자화는 해소되기 어렵게 된다.18)

또한 이들은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의 국제적 편차에 직면하면서 타자화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언어 소통의 문제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의 부적응 등으로 오랜 시간동안 고립되어 살면서 타자성이 극복되지 못한다.19)

다음의 시는 언어를 통한 문화적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

17) 아르준 아파두라이, 앞의 책, p.28.
18)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제38집, 한국사회학회, 2004. p.214.
19) 이수자, 위의 논문, p.213.

고향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국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잠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이
집에 다 와 간데이

-「원어原語」부분[20]

고향 가는 열차에서 각자의 아이를 안고 있는 두 여인, 동남아 여인들이다. 자기들만의 원어를 사용하여 무슨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일까? 시적 화자는 궁금하다. 그들이 잠깐 졸면서 잠꼬대 하는 소리도 화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그들의 무의식에 깊게 각인된 원어들이었다. 그들의 자연스런 행동들, 그들의 문화에 화자는 이질적인 시선을 의식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은 칭얼거리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경상도 사투리로 천연스레 달래

20) 하종오, 『아시아계 한국인들』, 삶이 보이는 창, 2007, pp.10-11.

준다.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데이”. 그들의 집은 한국이고, 그들의 언어도 한국어이다. 아울러 그들의 집은 동남아이고,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모국어들이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여 다문화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할 것이다.

<…>

늙은 총각들은 결혼하고 난 뒤에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잠자리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부모님 봉양도 해주기를
처자들에게 바랐을 뿐
산에서 가장 먼저 꽃 피우는 나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논둑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때를 가르쳐주지 않고
마당가 나무마다 열리는 열매 색깔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까치가 우는 까닭을 가르쳐주지 않고
장맛비가 쏟아지는 달과 눈보라치는 달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고 철마다 해가 언제 지고 뜨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한 집 건너 한 집
외국인 처자들이 시집온 뒤로
조금씩 피부색 다른 어린아이들
조금씩 이목구비 다른 어린아이들
한 마을을 이루었지만
조금씩 말을 다르게 해서
조금씩 서로를 다르게 쳐다보았다

-「코시안리 15」부분[21]

결혼상대자로 조선족 처자, 몽골 처자, 필리핀 처자, 베트남 처자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문화적 타자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늙은 총각들이 결혼한 뒤에는 가정의 살림살이와 부모님 봉양 등 이주여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 남편들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들조차 가르쳐주지를 않는다.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소외되고 배제되며 타자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2세들 또한 각자의 어머니에 따라서, 그들 어머니가 이해한 방식으로 조금씩 말을 다르게 하면서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다음의 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타자화의 시선으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겪는 아픔을 다루고 있다.

필리핀인 어미는 자신을 닮았으나
아비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들을 한국인이라고 믿었다
<…>
어미가 한국말 잘하지 못하니
자식도 한국말 잘하지 못하여
어미도 말이 없고 자식도 말이 없었다

어미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 데리고
모롱이 돌다 하늘 향해 한숨 쉬고
마을길 걷다 땅 향해 한숨 쉬었다

길가 잡풀 옆에 잠시 쪼그려 앉은 어미는
먹을 수 없는 미나리아재비 물끄러미 보고

21) 하종오, 위의 책, pp.76-78.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갔다

아비가 한국인인데도 자신의 아들이
한국인을 안 닮았다 해서 따돌리는 것이
필리핀인 어미는 너무 슬펐다

- 「코시안리 16」부분[22]

필리핀인 엄마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 피부색이 같고, 엄마를 닮아서 한국말에 서툴다. 아빠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들을 한국인이라 믿었다. 그런데 한국인을 안 닮았다 해서 학교 아이들이 따돌리기 때문에 아이는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먹을 수 없는 미나리아재비처럼 아들은 문화적 특질인 차이를 통해 배제되고 타자화되고 있다.

배제되는 차이가 가치 있는 한 국면으로 받아들여질 때 사회는 더욱 발전될 것이고 문화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특히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차별화로 2세들과 이주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함을 나타내고 있는 시이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젊은 아내는
한국어 이름 지어주기를 바랐다
풀도 국경 넘으면 그 나랏말로 불리고
나무도 국경 넘으면 그 나랏말로 불리고
벌레도 국경 넘으면 그 나랏말로 불리는데

한국인 남편은 모른 척했다

22) 하종오, 위의 책, pp.78-80.

한국어 못한다고 나무라기만 하고
왜 베트남어 배우려 하지 않는지
아이에게 한국말 가르쳐야 하고
베트남어 가르치면 왜 안 되는지
베트남인 아내는 알 듯 모를 듯 했다

한국 남자한테 시집와서 살겠다면
한국어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나
베트남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면
베트남어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나
서로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베트남인 아내는 입 다물곤 했다
<…>

-「코시안리 17」부분[23]

베트남에서 시집온 젊은 아내는 한국어 이름 갖기를 원했지만, 한국어 이름은커녕 한국어조차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를 못한다고 나무라면서도 남편은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아이에게까지도 베트남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서로의 문화가 다른데, 왜 한국인 남편은 자기의 언어, 자기의 문화만 고집하는지 베트남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타문화 수용의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 문화를 비롯하여 한글, 음식 등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타문화에 대한 배제와 이주여성에 대한 타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비가 곁두리로 먹는

23) 하종오, 위의 책, pp.80-82.

베트남 쌀국수
아이가 끼니로 먹으려 드는 게
어미는 반갑지 않았다

아비가 끼니로 먹는
쌀밥에 된장국
아이가 곁두리로 먹으려 드는 게
어미는 즐겁지 않았다

어미는 쌀밥에 된장국보다
베트남쌀국수 잘 만들기는 해도
아이에게 베트남쌀국수보다
쌀밥에 된장국 잘 먹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타일렀다
<…>
어미가 아비에게 조용조용
베트남 쌀국수 먹지말자,고 말하자
아비가 어미에게 고래고래
쌀밥에 된장국 제 맛이 나게만 만들어 봐라,고 소리쳤다

-「코시안리 30」부분[24]

아비의 새참을 아이는 끼니로 먹으려 하는 아이가 베트남 어미는 반갑지 않다, 아비의 끼니를 새참으로 먹으려 하는 아이가 어미는 반갑지 않다. 어미의 익숙한 음식 솜씨가 아이의 입맛에 맞은 것이다. 어미는 가만히 생각해 본다. 아이가 어른이 되면 한국인이다. 어미가 아비에게 새참인 “베트남 쌀국수를 먹지 말자”고 말하자, “쌀밥에 된장국” 맛있게 “만들어 봐라”고. 아비는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24) 하종오, 위의 책, pp.102-104.

아비는 한국 음식 만들기를 강권하기에 앞서 베트남 쌀국수 만들기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쌀밥과 된장국 끓이기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아이가 쌀국수를 끼니로 먹는 것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한다. 아이는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를 반반씩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권」[25]에서는 “시집온 지 일 년 되는” 결혼이주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푸대접을 받고, “고향으로 도망갈까 봐서/시댁 식구들이 여권을 숨겨놓고/허드렛일을 시”키듯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침해까지 서슴지 않으며 타자화 시킨다.

이렇듯 낯선 남편의 나라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첫 낯」[26], 「먼 메콩강」[27], 「시내버스 정류장에서」[28]처럼 이주여성들끼리 가장 빨리 낯이 익고, 서로 만나서 수다와 너스레를 떨며 그들만의 소통의 통로를 경험할 뿐이다.

이 단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문화를 수용하려 들지 않는 태도는 사람은 취하되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적 태도이다. 두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겠다는 태도가 결여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이 되므로 이주여성들에 대한 배제와 타자화는 해소되기 어렵게 된다.

Ⅳ. 전지구화와 다문화공간의 상생

지구화 시대를 이주화 시대라고도 부르듯이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에

25) 하종오, 「여권」, 『입국자들』, 산지니, 2009, pp.152-153.
26) 하종오, 위의 책, pp.150-151.
27) 하종오, 위의 책, pp.136-137.
28) 하종오, 위의 책, pp.176-177.

대한 배제와 타자화가 아닌 전지구화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여느 가정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탈영토화 된 문화들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29]

다음의 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주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롤리아 씨는
상추 솎다가 십릿길을 걸어서 왔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마리안느 씨는
농약치다가 이십릿길 경운기 타고 왔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맬리안 씨는
풀 매다가 삼십릿길 완행버스 타고 왔다
읍내까지 한국어 배우러 온 필리핀인 어미들은
어린 아이들 업고 안고 걸리고 와서
책상에 앉혀놓고 걸상에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말하기 듣기 쓰기 하고
어린아이들은 칭얼대고 버둥대고 비비적댔다
<…>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맬리안 씨는
풀 매고 있을 시아버지가 떠올라서
글자 자주 삐뚤게 썼다

– 「코시안리 29」부분[30]

필리핀인 어미들이 집안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십리, 이십리, 삼십릿길

29) 최종렬・최인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 방법론적 윤리적 논의를 중심으로」, 『문학과 사회』제4권, 2008. p.201.
30) 하종오, 『아시아계 한국인들』, 삶이 보이는 창, 2007, pp.100-102.

인 읍내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 버둥대고 칭얼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말하기 듣기 쓰기를 배우고 있다.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에서 갓 온 신부들은 수업 시간 내내 몹시 고생스럽고 힘들다. 한국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한국어에 익숙한 필리핀인 어미들 또한 일하고 있을 시댁의 가족들이 떠올라서 제대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가족들을 배려하는 이 이주여성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구화된 다문화의 공간에서 상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산그늘 덮이는 마을길에
베트남인 어미가 나와 두리번거리다가
필리핀인 어미가 나와 두리번거리다가
타이인 어미가 나와 두리번거리다가
서로 마주치자 말없이 돌아서서
제각각 산으로 들로 못으로 갔다
<…>
어스름 내리는 집집 마당에서
한국인 아비와 밤 껍질 까며
아이는 베트남인 어미 기다리고
한국인 아비와 도토리 껍질 까며
아이는 필리핀인 어미 기다리고
한국인 아비와 상수리 껍질 까며
아이는 타이인 어미 기다리고 있었다

-「코시안리 42」부분[31]

31) 하종오, 위의 책, pp.122-123.

아름다운 풍경화이다. 베트남, 필리핀, 타이인 어미가 저녁 무렵, 아이들을 찾으러 마을을 돌고 있다. 산비둘기, 잠자리, 왜가리가 있는 마을. 세 어미는 자식을 찾지 못하고 함께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집집의 마당에서 아비와 아이들은 아이들이 주워 온 밤, 도토리, 상수리 껍질 까며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 나라의 어미들, 그리고 세 나라의 2세들, 세계는 하나가 되어간다. 탈영토화된 다문화 공간들이 환하게 그려져 있다.

「사전」[32]에서는 "시집온 지 겨우 한 달" 되어가는 며느리를 데리고 시어머니는 서점에 간다. 그곳에서 "베트남어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베트남어 사전"을 산다. 이렇듯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으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편해지고 마음 놓이는지" 굳이 사전을 찾지 않아도 각각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베트남인 며느리와 손자가 걱정되어
노파는 마음 놓지 못하겠던지
맑게 한 번 눈떠본 뒤에야 숨 거두었다

베트남인 며느리가 울다가
시어머니가 겨울에 추우면 털옷 짜서 입으라고
가르쳐주던 뜨개질 떠올라 흑흑 울었고
손자는 눈물 흘리다가
할머니가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라며
가르쳐주던 공기놀이 떠올라 주룩 눈물 흘렸다
<…>
베트남인 며느리는 혼자
시어머니가 풀 맨 밭에서 잡곡 거두었고
손자는 친구들과 오가며

32) 하종오, 「사전」, 『입국자들』, 산지니, 2009, pp.178-179.

할머니가 쉬던 밭둑에서 놀았다

- 「코시안리 43」부분[33]

이주여성이 시어머니 임종을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이다. 노파는 베트남인 며느리와 손자가 걱정되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숨을 거둔다. 며느리와 손자는 시어머니와 할머니의 생시적 다정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남편이 상주되자 베트남인 며느리는 비로소 안주인이 된 것이다.

시어머니가 하던 대로 베트남인 며느리가 풀 맨 밭에서 잡곡 거두고, 할머니 쉬던 밭둑에서 손자는 친구들과 논다. 이질적인 두 문화가 하나로 이어지며, 지구화의 시대에 다문화의 상생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이다.

Ⅳ. 나오며

이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 양상을 하종오의 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종오 시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 양상은 대체적으로 생존의 여성화와 엇갈리는 욕망, 문화적 배제와 타자화, 지구화와 다문화 공간의 상생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의 일반적인 현상이 하종오 시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생존의 여성화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실업의 심화로 여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계책임자로 나서서 지구화의 흐름에 편승하고, 한편으로는 여성들로 하여금 열악한 이주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한다.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동남아 여성들은 한국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유기, 심지어 결혼이주여성의 자살 등 위

33) 하종오, 『아시아계 한국인들』, 삶이 보이는 창, 2007, pp.123-124.

험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이주를 선택한다.

이러한 이주여성들 또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동기와 더불어 잘사는 나라에 가서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은 근대적 욕망도 갖고 있었다. 남성들 역시 시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줄 온순한 여성을 원하지만 동시에 결혼을 통해 자신도 근대화된 한국의 어엿한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얻고 근대적 가족의 가장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을 함께 갖고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부부의 서로 엇갈리는 욕망들은 폭력, 이혼, 불신 등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초래한다.

또한 문화적 배제와 타자화에서는 한국식 문화만을 강요하고 이주여성 출신국가의 문화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이다. 두 문화가 만나서 풍요로운 문화로 융합하려는 공존과 상생의 의식을 결여한 체,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주여성들의 고립과 타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결혼이주여성들도 전지구화된 다문화 공간을 통하여 보통의 가정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결혼 생활과 일상을 통하여 탈영토화 된 문화들을 끊임없이 수용하며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하종오, 『반대쪽 천국』, 파주: 문학동네, 2004.

_____, 『아시아계 한국인들』, 서울: 삶이 보이는 창, 2007.

_____, 『입국자들』, 부산: 산지니, 2009.

2. 논문 및 단행본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 정치학보』15집 2호, 대한정치학회, 2007.

김수이, 「현대시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들」, 『어문연구』14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김신정, 「다문화공간의 형성과 '이주'의 형상화-한국 시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2010.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42, 한국사회학회, 2008, pp.41-49.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하종오의 시를 중심으로」, 『국제어문』44, 국제어문학회, 2008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의 이해』, 경진문화, 2009.

손철성, 「다문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107, 2008.

신주철, 「2000년대 한국시에 드러난 다문화주의의 양상」, 『세계문학비교연구』26,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09.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 사회의 이해』, 파주: 동녘, 2008.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pp.213-214.

임헌영, 「한국문학과 다문화주의」, 『2009 세계한국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세계한국어문학회, 2009.

최종렬・최인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방법론적・윤리적 논의를 중심으로」, 『문학과 사회』제4권, 2008, p.201.

황정미, 『페미니즘 연구』제9권, 한국여성연구소, 2009, pp.4-21.

마르코 마르티나엘,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2002.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pp.28-61.

Abstract

The Multicultural Aspects in Poems for Marriage Migrant Women
-Focused on Ha Jong Oh's Poetry-

Yun, Hye-Ok

The flow of global capitalism clearly exposes a migration phenomenon. In this situation of the times,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ulticultural aspects of marriage migrant women appearing in Ha Jong Oh's poetry. The multicultural aspects of marriage migrant women are mostly revealed as feminization of survival, crossed desires, cultural exclusion and other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coexistence of multicultural space in Ha Jong Oh's poetry.

In the feminization of survival, now women become breadwinners and get a lift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because of intense poverty and un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Moreover, such condition presses them to accept the conditions of poor migration. Although many Southeast Asian women know that there are many dangerous elements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including domestic violence, unjustified abandonment, and marriage migrant women's suicide, they choose marriage migration to Korea.

While they have motivation to help their family's livelihood, they have a modern desire to enjoy a middle-class lifestyle in developed countries. Men not only want obedient women who dedicate themselves to supporting their parents and childcare, but also have a desire to get a position of a respectable member in modernized Korea and live as the head of a modern family through marriage. Such crossed desires of multicultural couples often cause new problems and conflicts such as violence, divorce, or distrust.

Cultural exclusion only exacts Korean culture and does not accept the culture of migrant women's countries. It is a contradictory attitude that does not admit a cultural difference. It creates a situation that lacks for concern

of making one family by two cultures and unilaterally excludes one side and intensifies migrant women's isolation and otherization within the family.

However, marriage migrant women dream of happy marriage life as other ordinary families and try to realize it through globalization and the coexistence of multicultural space. They also accept and practice deterritorized culture through love and marriage life.

Key Word : Ha Jong-oh,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survival, feminization, exclusion, otherization, globalization

윤혜옥
소속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yho2708@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